

믿음과 운동경주

히12:1-13

올림픽에도 많은 경기가 있지만 피날레는 마라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라톤이 가장 많은 인내를 요구할 뿐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장 힘든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계는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에게 최고의 명예를 안겨 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단거리로 끝나는 경기가 아니라 한 평생을 끝까지 달려야 하는 영적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른 목표를 정해서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되고 쉬어서도 안됩니다, 바른 목표를 향해서 옆이나 다른 곳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평생에 걸쳐 열심히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거운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가장 가볍게 뛰어야 하는데 무거운 것이 있어서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인정 받는 것에 정신이 집중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성공과 출세를 포기해야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앞으로 달려 가려면 과거의 죄책감에서 놓여나야 하고 좋지 못한 습관에서 풀려나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그 재미있던 세상을 뒤로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 12:2)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힘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절망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본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영원까지 결코 실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이 죄악을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환란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파가 일었을 때도, 예수께서 즉시 일어 나서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매 바람과 바다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명령하시면 산천초목이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 한 마디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리므로 환난 당했었을 때, 주님을 쳐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환난 때 너와 같이 하여 너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 12:3)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너무나도 오래 기다리며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무엇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해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40 편 1 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게리 토마스(Gary Thomas)는 초대교회에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복하기 위하여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을 믿고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주권적인 뜻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근본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 죽을 각오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히 12:4)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마 히브리 기자가 보내는 편지의 교인들은 아직 핍박은 당하지만 순교할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끈질기기에 적당히 해서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술, 담배, 도박 이나 나쁜 습성들도 여유를 주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로 덤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 놓기 위해 고난을 주실수가 있습니다. **[히 12:5-8 봉독]**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징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실패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오는 고통이나 실패는 그 가운데 회개할 때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항상 제 2 의 기회를 준비하십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제 2 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제 2 의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면 제 2 의 삶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5 장 17 절로 18 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나오면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 장 8 절에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예일대학에 재학할 때나 결혼하기 전 젊은 날에는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수 정통 신앙을 가진 현재의 부인을 만나 결혼한 후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내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따라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성경에서 현대 정치를 위한 지혜도 배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예수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그는 나를 변화시켰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오고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함과 같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히 12:12-13)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부실했다면 이제 정신을 차려 무릎을 세우고 씩씩하게 달리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곧은 길은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모든 달려 갈 길을 마치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빠져 살아간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과 함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경주를 달려 간 자들은 하늘의 별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장거리 달리기나 다른 운동경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고, 그 경험들이 믿음의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3.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벗어나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시고 결단하십시오.
4. 삶 속에 경험한 인내의 열매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5. 4월 20일에 예정된 새생명축제를 위한 VIP선정을 위해 합심기도하고, 명단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